

동물실험은 옳은가?

1. 서론

최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과 관련된 문제도 하나의 윤리로 자리잡고 있다. 점점 동물권이 주장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진행되고 있는 '동물실험'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본 글에서 논할 것이다.

2. 본론

2.1 동물실험의 과학적 측면

본 글에서는 동물실험이 많은 오류를 일으킨다는 점을 전제로 동물실험에 반대한다. 동물실험은 생물학적인 오류를 일으킨다. 인간과 동물은 유전자의 구조부터 다르다 유전자의 구조가 같은 인간 중에서도 여자와 남자에게 발생하는 병이 다른데 동물의 유전자가 아무리 일치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쉽게 믿을 수는 없다. 그 예를 들면, 탈리도마이드와 클리오퀴놀이 있다. 탈리도마이드는 입덧 치료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부작용이 없었으나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들이 팔다리가 짧거나 아예 없는 기형아를 출산한 일이다. 클리오퀴놀은 지사제로 일본의 동물실험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약 만명의 사람들이 리오퀴놀을 복용한 후 눈에 마비가 오거나 시력을 잃었으며 수백명이 사망한 일이다. 이와 같이 동물의 유전자가 아무리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도 동물실험에서는 오류가 발생한다. 현실에서는 동물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일보다는 동물실험으로 인간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동물실험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2.2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측면은 둘로 나뉜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면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측면이다. 첫 번째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입장으론 인간의 이익 때문에 동물들이 희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동물에게도 쾌고감수능력이 있다. 인간 아기가 실험에 아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동물들이 실험으로 아파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으로서 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제 아래로 보며 살고 있다. 하지만 원초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인간과 동물은 똑같은 생물이다. 물론 인간과 동물은 같지 않다. 그것은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가 아닌 정말 다른 종으로써 다른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이유로든 다른 종을 차별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동물도 살아 숨쉬는 생물이자 함께 지구를 살아가는 지구의 주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측면으로 인간의 '이성'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본능보다 이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고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물실험을 바라보았을 때 동물실험은 모순일지도 모른다. 예전의 동물실험은 약 개발에 많이 이용됐다. 하지만 최근 '비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화장품이 유행하는 것을 보아 더 이상 동물실험은 종 전체의 이익 뿐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생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신 욕구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보려면 인간의 행위의 '대상'이 아닌 행위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학대를 했을 때 동물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동물이라는 '대상'을 인식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인간이 '학대'를 했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동물실험도 마찬가지이다. '실험'이라는 행위 자체는 좋지만 그 내용이 다른 생물종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3. 반론 및 재반론

3.1 반론

동물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동물실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동물에게도 이득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동물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고 동물을 윤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3.2 재반론

동물실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동물에게도 이득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실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빈도가 적어졌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인간에게 좋은 성분과 안 좋은 성분이 많이 파악되어 있다. 그렇기에 굳이 동물실험에 의존하며 누군가가 희생될 수도 있는 일을 계속 진행시키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물실험이 동물에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매년 수만은 동물들이 동물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는데 어떤 동물들은 그 동물실험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지금 민주주의가 많은 사회의 주된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동물도 동물 전체를 위해 어떤 동물들이 희생되는 것은 옳지 않다. 동물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고 동물을 윤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지금은 우리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

고 있지만 수십만 년 전에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인간이 지구의 주인일 것이라는 생각과 그로 인해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동물실험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과학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의 근거를 들어 이야기 하였다.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동물실험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동물은 쾌고감수능력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동물학대는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현재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줄기세포나 장기 세포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 또는 재조합해서 만든 작은 장기인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세포실험이나 컴퓨터를 통한 예측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국가와 많은 단체들이 동물실험에 대해 반대하고 동물실험의 대안을 연구하며, 그 대안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검증하는 활동이 많아져 동물과 인간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맞이할 것을 기대한다.

5. 참고문헌

탈리도마이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27462&cid=62802&categoryId=62802>

오가노이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66155&cid=43667&categoryId=43667>